

넓고 오래된 아파트에 경비원 실 곳이 없다

휴게실 설치 의무전 주택들, 공간 부족 등으로 없거나 지하에 설치 좁은 경비 초소서 숙식 해결...에어컨도 없어 벌써부터 '여름 걱정'

‘휴게실 설치 의무화’ 시행이 1년 넘게 지났음에도 광주지역 공동주택 휴게시설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공동주택의 노후가 심해져 시설 개선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휴게시설 확충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광주시에 있는 총 1260단지, 45만 6298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섰다. 이중 지어진지 20년 이상이 경과한 노후 아파트는 673단지, 21만 1945세대로 광주 지역 아파트의 절반 가량이 해당된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20년 이상 된 광주지역 노후 아파트 10곳을 돌아본 결과 의무설치 기준을 충족한 휴게시설은 2곳에 불과했다.

29일 오전 광주시 남구 봉선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들은 비가 오는데도 외부 작업을 해 온몸이 젖었지만 옷을 말릴만한 휴게공간이 없어 곤란해 하고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난해 부랴부랴 휴게실을 설치했지만 지하에 있는데다 시설이 열악해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 경비원들

은 좁은 경비초소에서 몸을 뒹거나 외부 목욕탕을 찾는다고 했다.

이 아파트 관리소장은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 여유공간이 없어 부득이하게 지하에 휴게실을 마련했다”면서 “경비원들이 불편해하는 걸 알고 있지만 개선하는데 공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

봉선동의 또 다른 아파트 역시 청소원 휴게실이 지하에 있다. 각종 청소 도구와 사다리, 버려진 가구 등이 가득한 계단을 따라 내려가니 어두컴컴한 지하에 휴게실로 쓰이는 컨테이너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지하에 마련된 휴게공간들은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에 노출되면 안된다’, ‘창문 등을 통해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협소한 공간조차 마련되지 않아 좁은 경비초소에서 쉬어야 하는 노후아파트들이 대다수다.

지난 1987년 지어져 385세대가 거주하는 봉선동 한 아파트에는 경비원 휴게실이 따로 없다. 경비원들은 휴식시간에도 좁은 경비초소에서 식사를 하고 잠을 자야하는 상황이었다.

이 경비초소에는 에어컨만 최근 설치됐을 뿐 바

닥면적이 6㎡가 되지 않고, 식수시설 등 의무 설비들이 없다.

이곳에서 10년 넘게 경비 일을 하고 있다는 이모씨(74)씨는 “너무 좁아서 웅크리고 자야한다”며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다. 오죽하면 지난 겨울에 직접 솜이불을 쟁겨와서 공풍 싸매고 있었다”고 호소했다.

광주시 남구 백운동의 한 노후아파트에서 7년째 경비원을 하고 있다는 오모(71)씨는 “에어컨이 고장나 떼어갔는데 새로 설치해주지 않고 있다”며 “이번 주말에도 29도까지 올라 힘들었는데, 더운 여름을 어떻게 보내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열악한 휴게시설만이 문제는 아니었다. 경비원들은 경비실에서 휴식을 취하면, 주민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충분히 쉴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경비원 김모(70)씨는 “휴식시간임을 아무리 설명해도 주민들이 ‘쓰레기 좀 치워달라’, ‘집에 전구 좀 갈아달라’고 한다”며 “심지어 전기세 아깝다며 지나갈 때마다 조명과 텔레비전 전원을 모두 꺼버리는 주민도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광주시와 자치구들은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휴게실을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휴게실이 지하에 설치됐거나 의무 설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불량 휴게소 시설에 대해 증축 및 개



광주시 남구 봉선동 한 아파트 경비실. 이 아파트 경비원들은 휴게실이 따로 없어 좁은 경비 초소에서 휴식을 취한다.

보수를 할 수 있도록 2000만원 이내의 보조금(보조금80%, 자부담20%)을 지급한다.

한편 지난 2022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이거나, 2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현장,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7개 직종 근로자(아파트 경비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건물 경비원, 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

게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휴게시설은 바닥면적 6㎡ 이상, 천장까지의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 창문을 통한 환기시설, 식수 설비도 갖춰야 한다. 다른 목적으로 활용돼 휴식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유해·위험 장소에서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글·사진=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29일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 D-30일을 맞아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을 비롯한 전남교육가족들이 여수세계박람회장 엑스포홀에서 박람회 성공 개최를 다짐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 D-30...성공 개최 다짐

전남교육청, 교육가족 다짐 행사 5월 29일~6월 2일 여수서 개최 전시·예술교류·축제 등 프로그램

전남교육청이 29일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 D-30일을 맞아 여수세계박람회장 엑스포홀에서 성공 개최를 위한 교육가족 다짐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대중 교육감, 황성환 부교육감

을 비롯한 도 교육청 간부, 직속 기관 및 교육지원청 간부, 전남도민관산협력위원회, 전남학부모회 연합회 회원 등 교육 가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오는 5월 29일 개막하는 박람회의 준비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러 지역 중심의 글로벌 교육을 활짝 열어가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박람회장에 많은 관람객의 방문이 예상되는 만큼 동 시간대 적정 관람객 수 제한 방안, 관람객 동선, 편의 시설 배치, 시설 점검 등 박람회장 안전 관리 사항을 공유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대한민국 미래교육 대전환의 시작점이 될 박람회 개막이 어느덧 눈앞에 다가왔으며 교육가족의 노력과 지역사회의 협력 덕분에 준비가 순조롭다”라며 “남은 한 달 간의 끈을 놓지 않고 안전하고 내실 있는 박람회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오는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5일간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에서는 미래교실·미래교육 전시·문화예술교류·미래교육 축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조리원 폐업 산재 인정하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노조)는 29일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호타이어 곡성식당에서 20여년간 일한 조리원의 폐업 산재 신청을 인정하고 조리원이 과도하게 배출되는 음식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조리원은 튀김 등을 조리시 발생하는 증기로 폐업의 원인이 되는 미세먼지와 폼알데하이드 등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국제암기구(IARC)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2000년 10월부터 23년간 조리원으로 일해 온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A씨는 이날 작업성 폐업 산재해 신청을 했다.

A씨는 조리실이 발생하는 튀김, 볶음, 구이 요리를 취급해왔지만,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조리실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환기시설 청소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국 폐업까지 이어졌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는 “원청사인 금호타이어는 곡성과 광주식당 주방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건강검진대행을 수립해야 한다”며 “환기시설을 개선하고 지하에 있는 광주식당은 지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기적인 폐질환 건강검진과 사후관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아광주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원으로 일하다 폐업에 걸린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조리실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승인을 받았다. /김대인 기자 kdi@

북구 우산수영장 5월 휴장

광주시 북구 우산수영장이 5월 한달간 문을 닫는다.

29일 광주 북구시설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광주북구건강복지재단은 우산수영장이 시설개선 공사를 위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휴관한다.

공단은 수영장 여과탱크 3년 주기 보수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여과탱크의 보수를 진행한다. 또 지난해 말 순환펌프가 고장나 펌프를 교체하고 습기로 인해 내려앉은 탈의실 천장을 교체, 전기

설비도 바꿀 예정이다. 공사에는 구비 1억 1000만원이 소요된다.

휴관에 따라 기존 장기등록자는 등록기간 1개월을 연장해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우산수영장은 지난해 5월에도 1억 7000만원을 들여 보일러를 교체하고 사우나실을 철거하고 샤워실로 교체하는 공사를 하며 한달간 휴관한 바 있다.

공단은 “지난해 예산 문제로 인해 한번에 공사를 진행하지 못해 올해도 휴관을 피지 못하게 됐다. 빠른 시일 내 공사를 마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